

# 이동국 “나도 프리미어리거”

## 미들즈브러, 포항과 이적료 합의 취업비자 발급되면 영입 발표

‘라이언 킹’ 이동국(28·포항 스틸러스)의 프리미어리그 입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21일(한국시간) 이동국의 영입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포항과 이동국의 이적에 대해 합의했다. 남은 건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적료 등 자세한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이적에 걸림돌이 돼 온 건 이적료에 따른 양측의 입장 차이였는데, 양 구단이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이동국의 프리미어리그 진출은 사실상 공식 발표만 남겨놓은 셈이다. 미들즈브러 홈페이지는 또 ‘이제 취업 비자를 받는 일만 남았다’는 제목으로 이동국의 취업비자 문제도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들즈브러는 지난해 4월 무릎부상을 당한 뒤 7개월동안 재활을 거친 이동국이 영국

내무부가 요구하는 ‘1년간 A매치 75% 이상을 뛰어야 한다’는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부상으로 인한 긴 재활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무부측이 호의적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낙관했다. 미들즈브러는 다음 주 초 이동국의 취업 비자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국의 포항 스틸러스는 이날 미들즈브러 감독의 이적 합의 발언이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

김현식 포항 사장은 “이동국의 이적을 놓고 양 구단이 합의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적료 등 세부 조건을 놓고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과 미들즈브러는 이동국의 이적료를 놓고 이견이 있어 협상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포항은 이적료로 100만 파운드(약 18억원)를 요구하는데 반해 미들즈브러는 20만 파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영 북동부 철강도시 연고 강팀 잘 이겨 ‘도깨비팀’

미들즈브러는 영국 클럽들 중의 철강도시 미들즈브러를 연고로 하는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보로(Boro)’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1876년 미들즈브러 크리켓 클럽선수들이 축구팀을 만든 것이 유래가 돼 1892년 잉글랜드 축구협회(FA)가 주관하는 리그에 가입했다가 재정난 때문에 1894년부터 1898년까지 다시 아마추어 리그로 내려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창단 115년이던 오랜 역사에 비해 성적은 신통찮아 1부와 2부리그를 오르내렸다.

미들즈브러는 요즘 ‘도깨비팀’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상승세를 탈 땀 흘려온 기세로 강팀들을 물리치지만 때때로 대패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시즌 미들즈브러는 우승팀 첼시와 준우승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홈에서 각각 3-0, 4-1로 완파했으나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선 무려 7골을 내주며 대패하기도 했다.

올 시즌 역시 마찬가지. 2라운드에서 첼시를 2-1로 물리쳤지만, 바로 다음 경기에서 포츠머스에 0-4로 크게 패했다.



## 이영표·설기현 나란히 평점 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이영표(30·토트넘)가 정규리그 9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했고 설기현(28·레딩FC)은 벤치를 지키다 후반에 투입됐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영표는 2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크레이브 카티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풀럼과 원정 경기에서 왼쪽 풀백으로 출전했다.

지난 18일 FA컵 3라운드 카디프시티전에 결장한 이영표는 왼쪽 측면을 안정적으로 지켰고 전반 19분과 26분 크로스를 올리며 공격에 가담했다.

이영표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50번째 출전했다. 토트넘은 후반 9분 풀럼의 헤이다르 헬거슨이 퇴장 당해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후반 39분 빈첸초 몬텔라에게 페널티킥 실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후반 43분 오른쪽 풀백 파스칼 심봉다가 동점골을 뽑아 1-1 무승부로 간신히 패배를 면했다.

포지션 경쟁에서 우위를 낚고 있는 설기현은 같은 시간 런던 외곽 마데스키 경기장에서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대기 멤버로 앉아있던 후반 28분 세인 롱 대신 교체 투입됐으나 이렇다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레딩은 전반 45분 톱의 선제골과 후반 6분 델라 크루스, 후반 25분 스티븐 헌트의 연속골로 셰필드를 3-1로 누르고 7위로 뛰어올랐다.

한편 영국 축구전문 인터넷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이영표에게는 ‘기복이 있었다(Up and Down)’는 평가를, 설기현에게는 ‘늦은 교체(Late Change)’라는 평가로 나란히 6점을 매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금땀어요”

21일 새벽(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오발 링크드 빙상경기장에서 열린 2007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우승한 이상화가 태극기를 들고 트랙을 돌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화 ‘金질주’

### 동계U대회 女빙속 500m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새별’ 이상화(18·한국체대 입학예정)가 2007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선수단에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이상화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이탈리아 토리노 오발 링크드에서 펼쳐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77.06초로 종전 대회 기록(78.08초)을 1초02나 앞당기며 우승했다. 1차 레이스에서 38초46으로 가장 성적이 좋았던 2차 레이스에서도 38초60으로 연속 1위를 차지해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이상화는 전날 이강석(한국

체대)이 남자 500m에서 뽑아낸 첫 금메달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겨주면서 한국선수단의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에 가속도를 붙였다.

또 전날 첫 금메달 소식을 알렸던 이강석은 남자 1,000m에 출전해 1분09초89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 엔리코 파브리시(1분09초68)에 0.21초 뒤지면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금1, 은메달 2개를 추가하면서 금 2, 은 5, 동메달 2개로 이탈리아(금3 은1 동1), 폴란드(금3 은1), 오스트리아(금3)에 이어 종합 4위로 뛰어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 ‘2벌타’ 불운 4위로 밀려

### 女월드컵골프 2라운드

한국여자골프가 제3회 여자월드컵골프대회에서 2벌타에 발목이 잡혀 뒷걸음질을 했다.

김영(27)과 신지애(19·하이마트)가 출전한 한국은 20일(이하 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시티의 게리 플레이어 골프장(파72·6천466야드)에서 포섭 방식으로 치러진 대회 2라운드 1번홀에서 뜻하지 않은 2벌타를 받은 뒤 힘든 경기를 펼치다 5오버파 77타로 경기를 마쳤다.

2벌타로 인한 트리플 보기가 1개, 더블보기와 보기가 각각 1개였고 버디는 1개에 그쳤다.

전날까지 파라과이에 4타 뒤진 2위였던 한국은 1.2라운드 합계 4오버파

220타로 2위에서 4위로 밀려나 이 대회 첫 우승컵을 거머쥐려던 계획이 적신호가 켜졌다. 파라과이는 2라운드에서 3오버파를 쳤지만 중간 합계 2언더파 214타로 선두를 지켰고 이탈리아가 2오버파 218타로 2위, 미국이 3오버파 219타로 3위에 뛰어 올랐다.

파라과이와 같은 조로 출발한 한국의 불운은 1번홀(파5)에서 일어났다. 김영의 두번째 샷이 왼쪽 러프에 떨어진 자리에서 신지애가 세번째 샷을 하려 했으나 백스윙 때 광고판이 걸려 심판위원을 불렀다.

하지만 심판위원이 오는 동안 경기 진행위원이 광고판을 치워 버렸고 대회조직위원회는 움직일 수 없는 인공 장애물을 치웠다는 이유로 2벌타를 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 청소년축구 우승

### 호주 4개국 친선대회

오는 8월 국내에서 열리는 17세 이하(U-17) 세계청소년축구대회(FIFA U-17 Worldcup Korea)에 출전할 한국 청소년대표팀이 호주 4개국 친선대회에서 우승했다.

박경훈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대표팀은 20일(이하 한국시간) 호주 시드니

에서 열린 대회 3차전에서 전반 19분 윤빛가람(부경고)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일본을 1-0으로 꺾었다.

한편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 최연소 A매치 골의 주인공이 된 지소연(위례정산고)을 앞세운 16세 이하(U-16) 여자청소년축구대표팀도 일본과 3차전에서 4-4로 비겼으나 앞선 경기에서 호주, 중국을 연파해 2승1무로 남자팀과 동반 우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골프장 장애물 움직였다면? 다른 사람이 치워도 선수에게 책임 물어

움직일 수 없는 인공장애물을 선수가 마음대로 치웠다면 벌타를 받는다는 사실은 웬만한 골퍼라면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인공장애물을 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같은 애매한 상황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여자월드컵골프대회에서, 불행하게도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 도중에 일어났다.

한국과 파라과이의 2라운드 2번홀에서 게리 플레이어 골프장 1번홀. 김영(27)의 두번째 샷이 빛나가 왼쪽 러프에 떨어졌고 신지애가 뒤이어 샷을 하려 했으나 작은 광고판이 걸려 스윙을 할 수 없었다.

한국 선수들은 고민 끝에 경기 위원을 불렀지만 경기 위원이 오기도 전에 경기진행위원들이 오더니 광고판을 치워 버렸고 신지애는 세번째 샷을 날렸다.

나중에 경기 위원은 상황을 파악한 뒤 움직일 수 없는 인공장애물을 움직인 뒤 샷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에 2벌타를 줬다.

한국 선수들은 “우리가 장애물을 치운 것도 아닌 데 왜 벌타를 받아야 하나?”며 항의했지만 대회조직위원회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앤디 로트 유럽여자골프투어(LET) 경기위원장은 “한국 선수들이 두가지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벌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한국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진행 요원들이 장애물을 치우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

문제의 광고판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광고판을 치울 필요도 없이 무벌타 드롭으로 경기를 속행할 수 있었다.

두번째는 경기 위원이 오기도 전에 한국 선수들이 광고판을 치운 뒤 샷을 해 버렸기 때문에 구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만약 경기 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광고판을 원 위치 시키고 무벌타 드롭으로 경기를 속행하면 됐다는 것이 로트 위원장의 설명이었다.

결론적으로 선수들은 다른 사람이 인공장애물을 치운다하더라도 골퍼 규칙을 알고 있다면 그 행위를 저지해야 하는 책임까지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운 셈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